

행복한 책임기

앤젤라 카터의 '매직 토이숍' <창비 펴냄>

보통 인형이라 하면 사람이나 동물 모양의 장난감을 말한다. 귀엽고 예쁜 사람이나 동물의 생김새를 비유할 때도 인형 같다고 하고 북에서는 자기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사람을 이르기도 한다.

그러나 1879년 헨리크 임센은 남성의 의지에 따라 사는 여성을 가리켜 '인형'이라고 했다. 이렇듯 '인형의 집'에 사는 '노라'는 수동적이며 맹목적인 삶의 대명사였으며 그녀의 가솔은 여성들의 독립적인 삶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었다.

'노라'가 가솔을 하고 난 뒤 여성들은 '노라'처럼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 거리로 뛰쳐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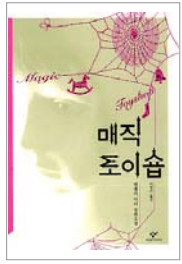
1960년대 후반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여성해방운동은 슬로건도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고 했다.

초기 여성운동은 대체로 소극적

스스로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매직 토이숍'은 인형과 장난감과 가면을 따위를 만들어 파는 가게다. 벨리니의 외삼촌인 필립은 처남 핀을 데리고 인형과 장난감을 만들고 벨리니와 마거릿 외숙모는 가게에서 그것들을 판다. 동생 조너선은 배를 만든다.

이 가게에서 인형과 장난감을 만들거나 팔지 않는 사람은 프랜체와 어린 동생 빅토리아뿐이다. 핀의 형 프랜체는 바이올린을 연주하려 다니고 빅토리아는 너무 어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형과 거리가 있던 없든 필립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모두 필립의 인형이다.

마거릿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목을



살살이 누빈 섬... 미역줄기 같은 섬사람들의 삶

20년 발품 '섬문화 답사기' 8권 펴내는 전발연 연구위원 김준씨

도시 사람들에게 섬은 막연한 동경의 대상이다. 낯선 곳에 대한 환상, 쉽게 닿지 않는 곳에 대한 알 수 없는 기대감으로 가슴이 설레고 '그 섬에 가고 싶다'는 주문도 건다.

수십년간 섬에 터를 뚫고 살아온 주민들도 그렇다. 관광객에게는 귀를 멀게 하는 시끄러운 소리로 들을 수 없고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것도 찾을 수 없는 고즈넉하고 풍광 좋은 섬이지만 주민들에겐 생존을 위해 억척스럽게 살아온 삶의 터전이다.

김 준 전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섬문화 답사기 - 여수 고흥편'을 엮어낸 것도 척박한 환경에서 물부리치며 살아온 섬 주민들의 실상을 들려주고 싶어서다.

그는 '여수 고흥'을 시작으로, '목포 신안', '완도 진도', '칠산바다' 등 8권에 걸쳐 전남 섬과 국내 섬의 속살을 찬찬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여행자 입장에서 보면 섬을 제대로 알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섬에서 억척스럽게 척박한 땅을 일구 자식을 물로 보낸 주민들의 얘기를 듣게 되면 밥상에 올라오는 낚시나 서대 등도 다르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그가 물과 단절된 공간에서 미역줄기처럼 질기게 살아온 섬사람들의 치열한 생존의 역사와 일상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그는 지난 1992년부터 근무가 없는 주말과 휴가 기간에 발품을 팔아 전남 지역을 비롯해 전국의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을 살살이 누볐다.

통계로 잡힌 전국의 섬은 3409개(유인도 487개), 전남만 2219개로 유인도도 296개에 달한다.

말처럼 쉽지 않았다.



첫번째 '여수·고흥편' 발간

장도·계도 등 섬 71곳 돌아

"금오도·광도·남도 꼭 가보길..."

"승용차로 돌아다니는 육지하고는 많이 달라요. 계획대로만 되면 운 좋은 날이죠."

그다 말지 않은 거리인데도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다는 뱃길이 하루 한 번 열리는 섬도 적지 않고 여객선은 커녕, 개인 배를 빌려타고 가는 곳도 많다. 그러나 섬에 들어가도 '온때'가 맞지 않아 미리 계획했던 답사는 커녕, 다녀온 것에 만족했던 적도 흔하다.

"바람이 많이 부는 '면'바다라며 특하면 뱃길이 끊겨 1박 2일 일정으로 갔는데 1주일 만에 나오기도 했어요. 섬 주민들이 배타고 바다로 나가 고기 잡는 사진을 찍으려는데, 날씨가 안좋아(바다로) 못 나간다는 말을 듣거나 기껏 나갔는데 고기가 잡히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섬은 육지처럼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장흥군 장재도 앞 여다지 갯벌 전경.

이렇게 걸린 시간이 20년이 넘었다. 그래도 부족했던지, '섬문화 답사기'를 내기로 결심하면서 다시 섬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섬을 돌아다니면서 '어촌사회 구조와 변동'이라는 논문을 써 박사학위를 받았고 주민들에게 들은 갯벌 이야기를 바탕으로 '갯벌을 가다', '김준의 갯벌이야기'라는 책도 냈어요. 사실, 섬 사람들의 얘기를 옮겨 적은 것밖에 없거든요. 전 이렇게 섬 주민들한테 도움을 받았는데, 막상 제가 해줄 것은 그 사람들의 얘기를 솔직하게 써주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여수 고흥'편은 여수·광양·보성·고흥·장흥·강진·해남 등의 섬 71개에 대한 소개와 주민들의 삶을 꼼꼼히 소개하고 있다. 30년간의 변화상이나 일반적인 여행 정보 등도 담았다.

그는 "최근 섬에 대한 관심이 부족 늘었다"면서 "섬과 섬 주민들의 삶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섬 여행이나 섬 개발도 보다 좋은 방향에서 추진되지 않을까"고 말했다.

여수박람회 찾았다가 가볼만한 섬을 찾으면 어떤 어디가 좋을까. 그는 주변의 금오도·광도·남도 등을 꼽았다.

"금오도는 조선시대 백성의 출입과 벌목이 금지됐던 봉산(封山)인데,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절경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대부산(382m) 산행 등 애깃거리가 많아요. 광도는 주민들이 밋는 막걸리도 맛있고 정상에 앉으면 바다 한복판에 있는 착각이 틀 정도로 아름답고 고즈넉해요."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여성의 독립성 회복, 세상은 아직...

이었다. '노라' 이전의 M.울스턴 크래프트가 여성이 남성에게 노예적인 복종을 하는데 대해 항의한 것이나 1869년에 S.엔터니 등이 여성참정권을 주장한 것이 고작이다.

여성의 호칭에 대해 미즈(MS)라는 새로운 단어를 제안한 클로리아 스타이넵은 "우주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자기 자신이다."라고 말했다. 또 베티 프리단은 '여성의 신비'에서 매일 침실을 치우고, 시장을 보고, 이불보의 색깔을 맞추고, 아이들과 땅콩버터샌드위치와 먹고, 아이들의 과외활동을 따라다니는 여성들의 삶에 대해 "이것이 다란 말인가?"라고 물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체트킨은 "여성 해방의 문제는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문제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여성

꼭 죄는 은 목걸이를 족쇄처럼 채워야 하고 벨리니는 바지를 입지 못하며 꼭두각시 백조에게 강간당하는 레다 역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공연되는 연극 무대에 서기도 한다. 필립은 자신이 만든 꼭두각시를 인간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인물이다.

이렇듯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필립에게 도전하는 사람은 핀뿐이다.

그는 벨리니를 위협한 백조를 부수고 버려진 공원에 묻어버리는 것으로 필립에 대항한다. 그렇다면 벨리니는 어떤가? 열다섯 살의 그녀는 바지를 입는 것으로 필립에 저항할 뿐 불길에 휩싸인 필립의 집을 빠져나올 때는 핀의 도움을 받는다. 그것뿐이다.

사실 21세기에 여성해방운동 운운하는 것은 진부한 이야기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상은 아직도 '매직 토이숍'이고 세상에는 '핀'이 없으면 독립성을 회복하지 못하는 여성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에게 먼저 묻는다. 이게 다에서는 안 되지 않았겠는가?



이현옥

1999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

여성부 '청소년 찬가' 음원 무료 배포

여성가족부는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는 '청소년 찬가'의 음원을 무료로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

이 노래는 주영훈이 작사·작곡하고 올해 청소년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된 텔런트 이인호가 불렀다.

음원(AR)과 반주(MR) 등 두 가지 버전으로 공개된 이 곡은 2분30초 분량으로 4분의 4박자 록발라드 형식에 가작 사랑·친구와 우정·미래 꿈에 대한 소중함 등을 담았다.

'청소년 찬가'의 음원과 반주 버전은 여성부 홈페이지(www.mogef.go.kr)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벨소리는 15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

문순태 소설 '타오르는 강' 완간기념 북콘서트 13일 담양 생오지 문학의 집

소설가 문순태의 대하소설 '타오르는 강' (전 9권) 완간 기념 북콘서트가 13일 오후 4시 담양 생오지 문학의 집에서 열린다.

1부 '타오르는 강'을 이야기하다'에서는 김병욱(문학평론가), 정선태(국립대교수), 전홍남(한려대 교수)씨 등이 패널로 나서 소설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며 이경희·박태경씨가 소설의 한대목을 낭독한다.

2부는 국악예술단 '놀풀판'과 문학의 어울림 행사로 꾸며진다.

송수권씨가 쓴 '생오지에 가련' 등 다양한

한 작품을 읽어주는 시낭송이 이어지며 태평소와 아쟁이 만난 '즉흥 시나위', 아쟁독주, 판소리 등 다양한 국악 공연이 펼쳐진다.

영산강을 소재로 한 '타오르는 강'은 문씨가 반평생을 오롯이 투자해 집필한 대작으로 1886년 노비 세습제 폐지에서 시작해 농학농민운동, 1920년대 나주 공삼면 조각쟁의, 광주학생독립운동까지 격랑의 반세기 삶을 살아온 민초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고향 담양에 '문학의 집 생오지'를 연 문씨는 집필 활동과 함께 소설대학을 운영, 작가의 길을 걷는 제자들을 가르쳐 왔으며 이번 콘서트는 제자들의 모임인 '생오지 문학회'가 마련했다. 문의 061-381-240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2 **창업30주년** **국제보청기** **30% 할인 봉사 OFF SALE**

www.kjhr.com

기간: 2012년 3월 15일~8월 31일 **독일보청기 정품만 사용합니다.**

본 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보약, 흥삼은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성인병 노화방지는
 · 적절한 운동
 · 마음에 평안
 · 음식조절입니다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